

境遇—數

경우의 수

경우—수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고려하는 수능 국어 경우의 수

한방을 위해.

@한방

境遇—數

제 1 교시

국어 영역

짜수형

성명

수험 번호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실력을 뽐내자!

목차

- * 시험 전날...
- * 시험장에 도착해서... (타임 테이블)

국어

* 현대시

- 1) 2023 EBS 현대시 1줄 요약
- 2) 낯선 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3) 현대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 4) 현대시를 풀다가 애매한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5) 선지 5개를 다 봤는데, 5개 다 맞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6) 현대시에서 자주 나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 7) 현대시 + 현대시 + 수필 set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고전시

- 1) 2023 EBS 고전시 1줄 요약
- 2) 낯선 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3) 고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 4) 고전시를 풀다가 애매한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5) 고전시 + 고전시 + 수필 set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6) 고전시 + 현대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현대소설(산문은 1줄 요약이 딱히 도움이 되지 않기에 ...)

- 1) 낯선 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2) 현대소설을 풀다가 애매한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3) 현대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 4) 현대소설 +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고전소설

- 1) 낯선 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2) 고전소설을 풀다가 애매한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3)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 비문학

- 1) 비문학이 평소와 다른 형태로 나온다면?
- 2) 글이 퉁겨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3)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4) 지문 읽을 때 유의사항
- 5)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지문이 남았다면?
- 6) 예열 문단

2023 EBS 현대시 1줄 요약

(*여러 주제에 해당되거나 애매한 시들도 있으니, 단순히 참고용으로 확인)

(*또한, 평가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출제할 가능성도 있음)

(*올해 6평, 9평 출제 작품 및 작년 수능에 출제된 작가는 제외함)

1. 삶의 의지, 생명력, 극복의지

나희덕	음지의 꽃 (☹현실 속에서 버섯의 희망과 생명력이 있음)
김남조	겨울 바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극복하려는 의지)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부정적 현실 극복, 새로운 현실 기대)
김혜순	별을 굶다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배추가 희생하며 얻는 생명력)

2. 이상, 가치를 추구, 소망, 바라는 것이 있음

7. 사회 현실 비판 (+현대 문명)

2023 EBS 고전시 1줄 요약

(*여러 주제에 해당 되거나 애매한 시들도 있으니, 단순히 참고용으로 확인)

(*또한, 평가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출제할 가능성도 있음)

(*올해 6평, 9평 출제 작품 및 작년 수능에 출제된 작가는 제외함)

가사	누항사 (안빈낙도, 썬 가난, 소 빌리려다가 거절당하는 대화가 나옴)	박인로
가사	연행가 (청나라를 다녀온 여정과 견문)	홍순학

향가	제망매가 (죽은 누이 그리워, 재회 염원, 종교적)	월명사
평시조	집 방석 내지 마라 (자연 속 소박한 삶)	한호
평시조	청초 우거진 골에 (인생 무상)	임제
평시조	사랑이 거죽말이 ~ (임에 대한 그리움)	김상용
평시조	님이 해오시매 ~ (임의 변심으로 인한 슬픔)	송시열
평시조	남은 다 자는 ~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임이 그리움)	송이
평시조	꿈의 단나는 길이 ~ (임이 그리움)	작자 미상
한시	습수요 (백성들의 삶 힘들어, 연민)	이달
한시	산민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 힘들어)	김창협
한시	배소만처상 (유배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함)	김정희

*낮선 고전 시가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한방

*고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사대부의 작품일 때)

①자연 친화(속세에 있다가 유배와서 쓴 글), ②자연 친화(속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은거하면서 쓴 글)→ 자연 친화 작품들은 속세에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속세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음. ③썬 가난, ④자연 완상, ⑤유교적 가치 강조(매난국죽), ⑥기행가사(여기 저기 돌아다님 공간 체크 중요), ⑦국가를 집에 비유하는 글(고궁가)

* 고전 시가를 풀다가 애매한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고전시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선지를 물어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어려워하는 것을 평가원 아저씨들은 알고 있다!!
2. 선택지를 키워드로만 보지 않고, 문장으로 읽는다. 현대시와 방법은 똑같다.
3. 그래도 애매하면 세로 치고 넘어간다. 정답은 그 밑에 있을 것이다.

2023 비문학

[1~3]	[4~9]	[10~13]	[14~17]
미니 비문학(독서와 무관)	철학	기술	사회학
독서론(일지, 독후감..)	논리학	생명	경제학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가?	사회학	그 외 과학	법학
(어휘력이 중요하다..)	경제학	법학	그 외 과학
날려읽지 말아라 등..	법학	경제학	생명
독해력 저격) ex) 올 해 6.9평	(가)+(나)융합 소재	사회학	기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많다. 예시로 적은 것이다.
[1~3] 지문은 독서에 관해, [4~9] 지문은 주로 철학, [10~13] 지문은 사회, 법, 경제, [14~17] 지문은 기술, 과학이 일반적인 패턴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 나왔을 경우의 행동 강령이다.

1. 만약에 [1~3]에 독서론이 나오지 않고, 논리학 등의 내용으로 짧은 비문학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독서론으로 가볍게 치부하던 학생들은 다들 당황할 것이다. '독서론 3분 컷 해야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논리학이 나와 당황하는 애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줄 알았지~ 하면 된다 ㅋㅋㅋ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만약에 [4~9]에 인문, 철학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역시도 똑같다. (가)와 (나)가 과학으로 나온다 해서 당황하지 않는 게 포인트이다. 그냥 하던 대로 (가) 독해하고, (나) 읽을 때 (가)와 뭐가 다른지 등을 차분히 읽으면 된다.

3. 만약에 독서론 지문이 사라진다면?

그러려니 하고 풀어라. 제발 당황하지 마라.

*글이 땡겨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심호흡을 크게 한다.
- ② 잠시 끊어가기 위해 omr 마킹을 한다.
- ③ 첫 문단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는다. (첫 문단 만이라도 제대로 읽자는 생각으로 읽다 보면 어느새 지문 전체를 읽고 있을 것이다)
- ④ 비례, 인과, 과정, 예시 등은 손으로 적는다. 평소에 적지 않던 학생도 현재 글이 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문 읽을 때 유의사항

① 주체 or 서술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한다.

2023 9평 유류분 제도 마지막 문단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원칙)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예외)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분 계산)

→ 유류분 부족액과 지분을 구분 했었어야 함.

② 지문이 추상적이거나, 쓰다 만 느낌이 들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